



제목	Bactria: The History of a Forgotten Empire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Westholme Publishing
발행일	2013.
저자	Hugh George Rawlinson
출판국가	미국
페이지수	208
ISBN 또는 ISSN	978-1594161865

내용 요약

“박트리아를 통해 유럽의 사상이 극동 지역으로 전파되었다면, 그와 유사한 채널을 통해 아시아의 사상이 유럽으로 전파되었다”는 말이 있듯이 박트리아는 이란계 유목민이 세운 파르티아와 함께 동서를 잇는 교통의 요지에 자리 잡고 중계무역을 통해 크게 번영을 제국이었다. 기원전 4 세기에 마케도니아가 페르시아를 침략 한 후, 현대의 아프가니스탄, 동부이란, 파키스탄 북부를 포함하는 지역에 그리스 지배 세력이 건국한 박트리아는 동전, 비문 및 건축 유적뿐 아니라 아시아와 유럽의 문헌에도 기록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트리아는 서부와 인도의 동부에 대한 부활로 페르시아의 압력을 받고 사라지기까지 200년 이상 유럽, 남아시아 및 극동 지역의 접점으로 활동했다. 전성기 때의 영역은 동쪽으로는 타림 분지, 서쪽으로는 페르시아, 북쪽으로는 소그디아나, 남쪽으로는 인도에 이르는 대제국이었다. 박트리아 지배계급 모두가 그리스계 출신이고, 그리스어가 공용어였으며, 그리스 화폐가 통용되는 등 전형적인 헬레니즘 국가였다. 기원전 2세기 전반의 제3대 왕 때부터 간다라 지방에 진출해 그리스 문화를 전파함으로써 헬레니즘 문화와 인도 불교문화가 융합된 독특한 간다라 미술이 탄생하였다. 박트리아의 역사는 당시 그리스, 페르시아, 인도의 고대 문헌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바탕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던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시대적 증거 자료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